

나의 2,000년대 목회를 말한다

서 용 주
(목사, 광주 무릎교회)

I. 들어가는 말

고등학교 학생 시절 고린도전서 9:16의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한 성경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때려서 만일 다른 길로 나가면 하나님으로 부터 무서운 벌을 받을 것 같은 강박관념으로 다른 길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한국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하였고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제1회 수료생이 되었다. 대학원을 졸업할 때 기독교 계통의 중·고등학교에서 교감 선생의 초청을 받았지만 사양하고 전라남도 의서해안 바닷가 초가로 된 교회당에 호롱불을 켜고 일반부 삼십여명 모이는 조그만 어촌 교회에서 전도사로 나의 목회가 시작되었다. 그 때 받은 사례비는 4,500원(현 시가로 220,000원 정도), 쌀 15되, 보리쌀 10되를 받았는데 그 때 내 아내도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었으니 함께 교사로 나갔으면 몇 배 더 많은 수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목회의 길에서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갖고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살아갈 것이다.

II. 목회자의 다섯가지 자세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자세에 철저히 서야 보람찬 목회를 할 수 있고 탐스러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철저한 소명감이다.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요,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택하셨고 예수의 제자로 삼으셨으니 이 목회의 길 이외에 딴 길로 가면 바울의 고백처럼 무서운 화를 받으리라는 마음으로 오직 이 한 길을 달려가야 할 것이다.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 하여도 나는 또 다시 목회자가 되겠다는 철저한 소명감이 없다면 다른 조건과 재능을 다 갖추었다 하여도 그의 목회는 성공할 수 없다. 이 소명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즉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진실한 인간성이다. 목회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튼튼하게 맺고 있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협조를 받지 못한다면 그의 목회는 성공할 수 없다. 내가 대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실하여야 한다. 사람이 진실하면 처음에 오해도 받고 탐탁치 않게 여겨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 받고 친밀하게 된다. 말과 행동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그저 적당하게 재주껏 넘겨가면 멀지 않아서 불신당하게 된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돈을, 특별히 공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교회의 현금 관리나 사용에서 정말로 깨끗하고 명확하고 철저하여야 한다. 단돈 십원이라도 뜻있게 지출되어야 하며 교인들이 묻기 전에 자세하고 분명하게 보고해 주어서 우리 목사님, 돈에 깨끗하고 그리고 교회 돈을 아끼는 분이라는 말

을 들어야 한다. 만일 우리 교인들이 정성들여 바친 헌금을 목사님은 낭비하고 마음대로 교인들과 상의없이 써버린다는 말을 듣게 되면 그의 진실성은 훼손되고 그의 목회는 벽에 부딪힌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허공을 쳐서는 안되겠다.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것과 같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말에 신임을 잃어버리면 그의 인격은 손상되고 불신되고 만다. 목회는 시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셋째로 풍부한 지식이다. 목회자는 가르치는 선생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 28:19~20)고 하셨다. 예수님은 참 선생으로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도리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풍부하고 깊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가르치는 내 자신이 실력 있는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여야 한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신학과 철학, 문학, 사회 각 분야의 여러 학문을 폭넓고 깊게 지식을 쌓아야 한다.

성경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이 성경을 보는 눈인 신학과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를 넓게 알고 있어야 하며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교인들의 학력은 점점 높아져 가는데 가르치는 선생의 실력이 미치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공부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넷째로 뜨거운 정열이다. 열심이요, 충성이다. 내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때 대학원장이신 김정준 박사님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궁둥이로 한다”고 하셨다. 이말씀의 뜻이 공부는 얼마나 책상 앞에 오래 앉았느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이, 나는 “목회는 발로 한다”고 말하고 싶다. 목사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 중에서 목자가 가장 그 의미를 나타낸다. 목자는 양떼를 몰고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가를 찾아 나서야 하고 병든 양을 싸매 주어야 하고 길 잃은 양이 있으면 밤 늦게라도 찾아 나서야 한다.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린도전서 4:2) 하신 말씀처럼 열심히 하여야 한다. 뜨거운 정열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한다.

다섯째로 치밀한 조직 관리다.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에서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우리 안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선한 목자에 대하여 말씀 하셨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어떻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알았느냐이다. 이 목자는 살아 움직이는 백 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한 마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목자의 사명을 갖고 있는 목자들이 얼마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나는 목회를 시작한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인 출석부를 만들어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의 출석을 정리한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나갈 때 교회당의 큰 문은 닫아 버리고 쪽 문 열어 놓고 그 옆에 내가 다음에 사모, 부목사, 전도사 순서로 서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과 모두 악수 하면서 인사하기 때문에 예배 후 교역자들이 모여 출석부를 정리하면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역, 권찰 카드에 결석자를 표시하면 권찰들이 확인하고 착오가 있으면 바로 연락하여 출석부를 교정한다. 새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인의 예배 출석율을 높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신년도에 집사를 임명하거나 권사를 세울 때 크게 참고한다. 예배 출석을 등한히 하는 교인은 신앙에서 병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Ⅲ. 교회의 당위적 원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의 방주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지상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교회상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야 한다. 나는 오늘까지 교회의 표어를 에베소서 4:15~16,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찌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를 근거로 “화목하고 생동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정하였다.

첫째로 교회는 화목하여야 한다. 에베소서 4: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라고 한 말씀처럼 막힘이 없이 나가고 있어야 한다. 화목이 깨뜨려져 버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은 없어지고 인간의 썩은 독선과 교만과 이기심의 냄새만 풍겨난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교회 안의 분규와 싸움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교회에 나가서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포근히 안기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괴로움과 복잡함으로 얽히게 되는 것은 교회의 화목이 깨뜨려졌기 때문이다. 교회에 가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온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 성도의 친교가 무르익고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한 자

리에 앉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이 사회에 사랑과 선과 의를 심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로라도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사단의 꾀계다. 마태복음 5:9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이루어 간다. 그러나 불화를 일으키는 자는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교회에 분규가 있는 것은 초신자들이나 직분을 맡지 않은 일반 신도들 때문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성경을 통독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등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은, 소위 신앙이 좋다는 신자들에게 의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목소리가 정도 이상으로 클 때 교회는 시험에 들고 분규가 일어나고 상처를 입게 된다. 그 이유는 자기의 주장, 생각, 기분을 주님 앞에 세우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을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이요, 천국 열쇠를 맡긴다는, 이 세상 사람으로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축복과 칭찬을 받았다. 이 신앙고백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하여 고난 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서는 않된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로 막았다. 그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무섭게 책망하셨다. 조금 전에 교회의 반석이요, 천국 열쇠를 맡은 자리에서 사단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앞에 서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베드로도 사단의 자리로 떨어질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떨겠는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 즉 겸손을 닮아가고 예수의 삶, 즉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의 생명, 즉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에 접붙힘 받아 영생의 축복을 받는 데 있다. 교회의 화목의 일차 책임은 당회에 있다. 그 교회의 당회장과 당회원, 즉 목사와 장로가 화목하면 그 교회는 화목하게 된다.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의 화목이 깨트러지고 분쟁과 분열이 들끓는 것은 거의 목사나 장로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더 목사나 장로는 항상 에베소서 4:1~3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교회는 생동해야 한다. 살아 움직여야 한다. 에베소서 4:16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고 한 말씀에서 우리는 각 지체가 교회의 각 기관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맡은 소임에 충성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살아 있는 생명체는 생동한다. 죽음이 가까운 노인이나 병자는 모든 것이 귀찮고 재미도 없어서 그저 가만히 누워 있으려 하지만 힘이 넘치는 젊은이는 하루 종일 움직이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교회는 살아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동하여야 한다. 교회가 생동할 때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은 한 마음이 되어 각자 맡은 바 직책에서 열심히 봉사한다. 교회가 몇 사람에게 의하여 운영되고 대다수 교인들은 예배만 드리고 모든 일에 참여하지 않고 무관심해 버린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병든 교회이다.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는 누구나 끌고루 감당할 직책을 주어서 봉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 교회가 생동하려면 제직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 교회 제직회의 월례회 출석 회원이 60% 이상 모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생동하지 못한 것이요, 반수도 모이지 않는다면 병든 교회이다. 제직의 의무는 제직회 참석하는 것이다. 제직회원이 제직회 참석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직회는 전 제직을 부서별로 나누어서 시무 장로가 부장이 되고 권사, 집사가 부원이 되어 제직회의 결의를 받아 예산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 부서의 종류는 시무장로의 수로 하는 것이 좋다. 예로, 예배, 전도, 교육, 선교, 사회, 봉사, 친교, 관리, 재정 등으로 나누고 일년 예산도 부서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 교회가 생동하려면 전 제직이 모두 참여하여 다 같이 봉사하여야 한다.

셋째로 교회는 성장하여야 한다. 살아 있는 생명체는 해가 갈수록 성장한다. 성장을 더 이상 못할 때 그것은 병들었거나 늙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예배드리는 신도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 하더라”,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6: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살아 있는 초대 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을 말해 주고 있다. 또, 교회의 양적인 성장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성숙한 성장이어야 한다. 교회의 성장은 사회 어떤 단체의 회원수 증가와는 전적으로 다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가 날로 증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에베소서 4:16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한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성숙해 가야 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라 하지만 한없이 성장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성장하였으면 성장을 멈춘다. 교회도 그 지역 사회의 여건과 구성된 교인들의 역량에 의하여 성장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교회 자체로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어도 다르

게 성장하는 방법이 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마치 사람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때 아기를 낳고 그 아기는 내 살과 뼈와 피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나의 분신이며, 그러므로 아기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성장하는 것과 같이, 눈물의 기도와 땀의 봉사와 피의 헌금이 드러져 개척된 교회는 우리 교회 자신의 분신이요, 그러므로 개척한 교회의 성장은 바로 우리 교회의 성장인 것이다. 대 교회가 비만증에 걸려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분립하여 또 하나의 교회가 설립되면 새로 설립된 교회는 모교회의 분신이요, 두 교회는 젊은 교회가 되어 화목하고 생동하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해야 하며 개척하고 분립하여 끊임 없이 성장해 가야 한다.

교회가 성숙하게 성장하려면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가 은혜가 넘쳐야 하고 교인들을 지도하는 치리, 즉 행정이 원숙하여야 한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교인들이 그 예배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고 삶의 가장 귀중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 하나가 다 귀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서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 설교는 듣는 사람의 심령을 울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성령을 보혜사로 고백케 하여야 한다. 설교는 사실을 알려 주는 보도와 깊고 넓은 지식을 전해주는 강연과 마음을 사로 잡는 연설과는 다르지만 이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케 하는 믿음이 싹터 나오게 하여야 한다. 믿음은 머리로 분명히 알고(智),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고(情), 몸으로 성실히 사는 것(意)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머리로 분명히 알고 가슴으로 뜨겁게 느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내 뒤편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 보면서 몸으로 성실히 살게 하여야 한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크게 깨닫고, 뜨겁게 감격하고 새로운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서의 설교여야 한다.

내재로 교회의 치리, 즉 행정이 막힘이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정치는 성직자의 목회권과 평신도의 대표권이 상호 견제하면서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다. 그 교회에 목사가 여러명 있어도 담임목사(위임목사) 외에는 당회원이 될 수 없으며 시무 장로는 여러 사람이 있어도 당회원은 될 수 있으나 당회장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담임목사의 목회권은 교인의 대표인 장로의 다수의 대표권에 제한을 당하고 교인 대표인 장로의 다수의 대표권은 담임목사의 당회장권에 의하여 견제 된다. 그러므로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합의에 의하여 교회가 운영되고 선교사업을 진행한다. 성직자의 목회권이 강화되면 독선과 독재에 흐르기 쉽고 평신도의 대표권이 강화되면 다수의 횡포에 의하여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기 쉽다. 담임 목사는 겸손히 교인들의 의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도 분명한 신학과 사명감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교인들의 목자로서 교인들을 지도하여야 할 것이요 교인들은 목사의 목회권을 존중하면서도 분명한 건의에 조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IV. 맺는 말

목회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선교다. 그 선교 현장은 구체적으로 내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다. 그러므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義)와 인(人)과 신(信)이 무르익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신의 몸된 교회를 시무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목회자는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두려움과 떨리고 그러면서도 기쁘고 감사하여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며 목회하여야 한다. 목회자는 요한계시록 2:10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교인 목회를 하여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한국교회와 학생신앙운동의 전망

김 광 석
(목사, SFC 간사)

1. 들어가면서

21세기의 교회와 학생신앙운동에 대해서 논하기에 앞서서 먼저 개인적인 당혹감을 느낀다. 그 이유는 학생신앙운동에 몸 담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21세기의 한국교회를 내다보면서 학생신앙운동을 논한다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젊은 목사로서 21세기의 교회를 전망한다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경륜이 없는 나에게 이 글을 맡기는 것은 단순한 경험적 입장보다는 한국교회와 학생신앙운동에 대한 당위성과 원리의 입장에서 글을 쓰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원리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2. 파라처치(Para-church)운동으로서 학생신앙운동

파라처치운동이라는 말을 하면 교회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일부 선교단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파라처치이기 때문에